

20대 70% “BTS 군대가야”... 병역특례 반대 이유 들여보니

20대의 73.2% “병역 의무 감당해야해”
“기준 모호해져...연령 상향도 고려해야”

세계적인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병역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특례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특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 배경이 주목된다.

이들은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할 경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입대 연령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에이(이하 씨앤에이)에 따르면 온라인매체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BTS 병역 특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BTS가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

답이 54.1%로 나타났다. 반면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40.1%에 그쳤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병역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20대 응답자 중 73.2%, 30대 응답자 중 60.4%가 멤버들의 병역 이행에 손을 들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인데, 한국인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BTS가 이룬 업적에는 공감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20대 이모씨는 “BTS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면 그동안 정립됐던 예술·체육계 특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다”며 “예외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20대 회사원 안모씨는 “찬성

측은 경제적인 논리로 BTS 병역 특례를 주장하는데 그 논리라면 재벌 등도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며 “병역 의무는 공정해야 한다. 이러한 특례는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20대 윤희모씨도 “솔직히 BTS가 군대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새로운 특례가 생기게 되면 이후에도 기준이 모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역 특례에는 반대하나 입대 연령을 늘리거나 대체 근무 방식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20대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BTS를 위한 군 면제 기준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비연예인과 달리 경제 활동이 20대에 집중된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연령을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성세대가 국익이나 공동체의 가치에 주목하는 한편, 젊은 층일수록 그 보다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BTS가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공동체나 국익을 강조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층은 공정담론의 가치를 중시해 남태 가리지 않고 반대가 높았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20대를 중심으로 군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 반대표가 많이 나왔을 것”이라며 “특히 20대 여성의 반대표도 많이 나온 것을 보면 공정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 안 죽는 정해인...드라마 ‘커넥트’

정해인·고경표·김혜준 등 출연 확정

배우 정해인·고경표·김혜준이 드라마 ‘커넥트’ 출연을 확정했다.

디즈니+는 7일 이렇게 밝히며 ‘커넥트’를 오는 12월 공개한다고 했다. 이 작품은 미키에 타카시 감독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 시리즈로, ‘커넥트’로 불리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새로운 인종의 이야기를 그린다. ‘커넥트’인 ‘동수’가 장기 밀매 조직에 납치당해 한 쪽 눈을 빼앗긴

뒤 자신의 눈이 연쇄살인마에게 이식됐다는 걸 알고 그를 쫓는 추격전을 담는다. 정해인이 동수를, 고경표가 동수의 눈을 갖게 된 ‘진섬’을, 김혜준은 동수의 조력자 ‘이랑’을 맡는다.

미키 감독은 ‘크로우즈 제로’ 시리즈, ‘작신아리’ 등을 만든 연출이다. 주로 장르 영화를 만들며 한국 유니버시티 영화 ‘쓰리, 몬스터’에서도 연출을 맡은 적이 있다.

배우 도경수, 푼기충만 꼴통 검사로 등장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진검승부’ 다음달 5일 첫방송

‘진검승부’ 도경수가 푼기충만 꼴통 검사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나선다.

KBS 2TV 새 수목 드라마 ‘진검승부’ 측은 도경수의 3초(超) 티저 포스터를 7일 공개했다.

‘진검승부’(극본 임영민, 연출 김성호)는 불량함과 결명함으로 무장한 검사 진정(도경수)이 부와 권력이 만든 영역,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욕심쟁이들까지 무너지게 깨부수는 이야기를 그린다. 도경수, 이세희, 하준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무엇보다 도경수는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이단아, 생태계 교란종인 푼기충만 꼴통 검사 ‘진정’ 역을 맡았다. 도경수가 연기할 ‘진정’은 정보보다는 편법, 정석보다는 꼼수를, 성실함보다는 불량함으로 부정부패한 권력자들을 처단하는 인물. 동시에 약자 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약민들에게 열 배로 갚아주는 결이 다른 히어로로 활약한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 속 도경수는 부스스한 폭탄 머리와 목검을 장착한 채 여유만만 미소와 불량한 눈빛을 빛내는 모습으로 불의에 대



한 한사표를 내던지고 있다. 특히 모든 신입 검사들이 범복을 입고 있는 검사 인관식에서 홀로 추리닝을 입고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이런 검사는 없었다! 예는 검사인가? 꼴통인가?”이라는 문구가 더해져 호기심을 높이고 있다.

제작진은 “‘진검승부’ 티저 포스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온 검사 캐릭터의 틀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범상치 않은 검사 진정의 탄생을 담았다”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색다른 열혈 꼴통 검사 진정으로 거듭나게 될 도경수에게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0월 5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

뉴스

블랙핑크, 북미·유럽 14개 도시 19회 공연...월드투어 ‘본 핑크’

LA बैं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입성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약 150만 관객 동원을 예고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의 북미·유럽 일정을 공개했다.

7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이번 ‘본 핑크’ 월드 투어에서 북미 7개

도시에서 10회차, 유럽 7개 도시에서 9회차 공연을 연다. 두 대륙에서만 총 14개 도시 19회차에 달한다.

이번 투어의 포문은 오는 10월 15~16일 서울에서 연다. 이후 곧장 북미로 향한다. 같은

달 25일 댈러스를 시작으로 29일 휴스턴, 11월 2일 애틀랜타, 6~7일 해밀턴, 10~11일 시카고, 14~15일 뉴욕, 19일 로스앤젤레스(LA)까지 총 25회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블랙핑크는 유럽으로 이동한다. 11월 30일~12월1일 영국 런던,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쾰른, 12월 11~12일 프랑스 파리, 15일 덴마크 코펜하겐, 19일 베를린, 22일 등의 공연을 통해 유럽 현지 팬들과 만난다.

특히 LA बैं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입성을 포함해 지난 월드투어 당시보다 일정과 공연장 규모가 확대됐다. 로스앤젤레스 FC가 운영 중인 이 구장은 2018년 개관했고 2만2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5월 트와이스가 공연했다.

YG는 “유럽은 보다 많은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좌석수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블랙핑크와 YG는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투어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이번 블랙핑크 북미, 유럽 공연의 선예매를 위해선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블랙핑크 멤버십 얼리 버드(BLINK MEMBERSHIP EARLY BIRD) 가입자에게 13일 오전 10시(이하 현지 시간)부터 1차 선예매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16일 오후 1시(한국 시간) 정규 2집 ‘본 핑크’를 발표한다. 이 앨범의 선공개곡인 ‘핑크 배움’은 스포티파이 톱 송 글로벌 주간 차트서 K팝 최고 순위인 2위에 올랐다.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과 영국 오픈셜 싱글 차트에서는 각각 22위를 기록했다.

배우 오영수 “에미상” 레드카펫 힘있게 밟고 오겠다”

연극 ‘러브레터’ 제작발표회

배우 오영수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에미상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데 대해 “국제적 위상이 있는 상의 후보에 올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영수는 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에서 열린 연극 ‘러브레터’ 제작발표회에서 “(저의) 수상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중에서 한두 사람은 수상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선 연극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 박정자가 에미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오영수에게 명품 구두를 선물한 사실도 공개됐다. 두 사람은 1971년 극단 자유에서 처음 만나 50년 이상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장현성은 “박정자 선생님이 오영수 선생님께 에미상 시상식에 씩씩하게 좋은 기운으로 가시라고 선물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전했다.

오영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박정자 배우가 선물을 해줬다.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 크더라”라고 웃으며 “(박정자에게) 흰머리를 날려가며 레드카펫을 밟고 오겠다고 말했다. 더 힘

이 생각하고 모습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뜻깊은 선물”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박정자는 “장현성 배우가 오영수 배우에게 선물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하더라. 큰 선물을 기대한다는 것”이라며 “옆에서 우리가 상을 타고 오는 게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했더니 부담을 갖더라. 그런데 (수상)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싶다. 좋은 기록을 갖고 돌아오면 연극 ‘러브레터’도 더 빛날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앞서 ‘오징어 게임’은 에미 시상식에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후보가 된 역대 최초 드라마가 됐다. 기술 부문에서 7차례 후보에 올랐고, 작품·연출·극본·남우주연·여우주연·남우조연 등 6개 부문에서도 후보로 지명됐다. 남우조연상에는 오영수와 박해수가 함께 올라 총 13개 부문에서 14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작품·감독·연기 등 주요 부문 시상식은 12일에 열린다.

연극 ‘러브레터’는 미국 극작가 A.R. 거니의 대표작으로 50여년간 두 남녀가 주고받는 편지들로 이뤄지는 작품이다. 박정자가 적극적으로 솔직한 성격의 자유분



방한 예술가 ‘멜리사’, 오영수는 멜리사의 오랜 연인이자 친구인 슈퍼 엘리트 ‘앤디’를 연기한다. 배종옥과 장현성이 같은 역을 번갈아 연기한다. 10월6일부터 11월13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한다.